

새로운 안면신경마비 재건방법; 구강내 절개만을 이용한 측두근 전이술

고려대학교 성형외과 박승하 교수

많은 안면신경마비 환자들이 후유증이 남아서 입이 돌아가고 눈이 감기지 않아 눈을 뜨고 자고 눈에 염증이 잘생기며,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음식과 침이 고여 불편하며 특히 표정소실로 얼굴이 비대칭이 되어 남 앞에서 말하거나 웃지도 못하여 사회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성형외과에서는 20년 전부터 안면신경마비 환자를 위한 안면신경 재건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안면신경마비는 환자마다 증상이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런 표정회복을 위해서는 환자에 맞는 재건 방법이 필요하겠다.

젊은 환자나 소아에서는 정상 측에서부터 신경이식을 하고 근육이식을 하여 얼굴 양측이 동시에 움직이며 자연스런 표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수술은 대퇴부나 등에서 근육을 이식하는 방법으로 현미경을 이용한 미세수술로 수술시간이 오래 걸리고 표정회복도 수개월 이후 천천히 나타나게 된다.

신경 재생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이나 부분 마비환자, 근육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환자에서는 다른 재건 방법이 필요하며 안면 주위에 있는 근육을 이용하게 된다.

박승하교수는 측두근을 이용한 수술은 17례에서 사용하였으며, 최근에는 구강 내 절개만으로 얼굴에 흉을 만들지 않고 재건하였다. 수술시간이 1-2시간으로 짧으며 회복도 빠르고 자연스런 표정회복도 일찍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보고된바 없는 새로운 방법으로 지난 4월 21일 대전에서 열린 대한성형외과학회에 보고한바 있다.

측두근은 귀 위의 머릿속에 있는 저작 기능을 하는 근육으로 저작 기능은 교근도 있어 측두근을 사용하여도 불편함이 없겠으며 수술의 장점이 많아 앞으로 많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